

동지가 금속노조다!

# 대전충북지부

5.1 노동절  
특별호

발행인 : 권현구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조무력화 분쇄! 노조할 권리 쟁취! 윤석열정권 퇴진!

## 5.1 노동절 모입니다!

- 대전 : 5/1(수) 10:30, 보라매공원 (대전시청 남문방향)
- 충북 : 5/1(수) 14:00,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청주 내덕동)

### 노조 무력화 하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의 노조무력화 정책이 금속노조를 정조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조 전임자 축소 (타임오프 제도)를 통해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동차, 철강, 조선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정확히 금속노조를 겨냥한 노조무력화 정책이다.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임자 축소 시도에 맞서 타임오프 제도 폐지를 위한 정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노동절

5월 1일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날이다. 올해 노동절 투쟁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무력화 정책을 깨뜨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이다. 또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선포의 장이기도 하다.

5월 1일이 단순한 유급휴일이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만들어온 날만큼 전체 조합원 모두가 함께 노동절 투쟁에 나서자. 노조를 무력화하는 정권에 맞서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을 보여주자.

### <세계노동절(May Day)의 유래>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진압했고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8시간 노동제 쟁취와 경찰의 유혈진압 규탄 투쟁이 더욱 더 대규모로 벌어졌고 정부는 이 투쟁을 폭동으로 둔갑시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1889년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다. 1890년 5월 1일을 기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한 국제적인 노동절 투쟁이 벌어졌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

1923

## 한국 최초의 노동절 행사

1923년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총연맹'이 개최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 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요구

1946

## 해방, 전평 깃발 아래 열린 노동절

1945년 결성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1946년 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렀다.

1957

## 날짜도 이름도 빼앗긴 노동절

1957년 이승만 정권은 “메이데이는 공산괴뢰도당이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어용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 결성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 날짜 변경

1970년

##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 로 바꾸고!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일 잘하는 '근로자'가 필요했다.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근로자의 날 산업역군이라는 사탕 발림으로 [모범 근로자]를 뽑아 상을 주었다. 단결과 투쟁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자본에 들러리 서는 굴욕적인 “근로자”가 된 것이다.

1989년

## 매년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로

198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여 그 해에 주요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다.

## 다시 되찾은 메이데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지역, 업종을 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었다.  
이 힘으로 1989년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결성, 굴욕에 찬 근로자 인생을 청산하고 한국 전쟁이후 단절되었던 5.1절 노동절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했다.  
1989년 삼엄한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연세대학교에 모인 전국의 5천여 노동자와 청년들은 전야제를 갖고 4월 30일 제 100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2024년